

달리며 만들고 나누기...동명동 이색 러닝 '눈길'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여행자의집서 버터런 성료 체험 챌린지·네트워킹도...도심형 관광 프로 '주목'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은 지난 28일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을 거점으로 이색 러닝 프로그램 '동명동 버터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동명동 버터런'은 재단 기획 프로그램인 '취향 가이드 ZIP'의 하나로, 처음 진행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

이날 버터런에 참여한 러너 30여명은 오후 7시 무렵 가벼운 사전 운동으로 몸을 풀고 동명동 여행자의 집을 출발해 동명동 골목길, 푸른길 산책로, 광주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5km 코스로 러닝을 완주했다.

러너들은 초록이 예쁜 푸른길 등 도심 속 명소를 함께 달리며 광주 동구의 일상

적인 풍경을 만끽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샌크림이 담긴 용기를 들고 달리며 진동을 통해 직접 버터를 만드는 버터런 챌린지였다. 버터가 된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참가자들은 완주 후 다과와 버터를 나누며 정겨운 교류와 소통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러닝 문화와 체험형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색다른 도심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참가자들로부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달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것이 더욱 특별했다"거나 "익숙한 동명동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8일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을 거점으로 이색 러닝 프로그램 '동명동 버터런'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제공-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과 광주 도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창현 대표는 "동명동 버터런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참여형 콘텐츠에 광주 동구만의 장소성과 체험 요소를 더한 프

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동명동 여행자의 집을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은 관광안내 기능을 넘어 체험·교류·참여가 이뤄지는 도심형 여행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향 가이드 ZIP'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취향을 탐색하고 교류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브런치 클래스와 애프터 워크 클래스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연중 선보인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 동구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나눔 실천에 동참한 황톳길을 신규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 동구 황톳길, 나눔문화 확산 동참

광주 동구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나눔 실천에 동참한 황톳길을 신규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3만원 이상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를 말한다.

정행숙 지사협 위원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참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란 동명동장은 "이웃을 위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에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윤예림 (주)미소다 대표, 전남 사랑의열매에 물품 후원

4300만원 상당...아동·노인 등 복지기관 배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아식품 전문기업 (주)미소다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전남사랑의열매 분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주)미소다 윤예림 대표, 박성민 부사장과 고수경 사단법인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회장, 김동국 전남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물품은 4324만원 상당의 영양보조식품 1008개 (84박스)로 전남아동복지협회,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전남지역 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광군지부에 배분·전달된다. 특히 임신된 원재료로 정직

하게 만든 제품인 만큼 아동부터 노약자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예림 대표는 "정성껏 만든 제품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질 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국 전남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주)미소다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유아식품 전문기업 (주)미소다가 전남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사진제공-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주농기센터, 조직 역량 강화·지역사회 나눔 실천

나주시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계기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동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를 활용해 직원 소통 강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병행했다.

센터는 최근 나주로컬푸드를 통해 마련한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채소, 잡곡 등 약 20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꾸러미 40박스를 지역 푸드뱅크에 전달,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힘

썼다.

이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직원과 간부 공무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조직 유대감을 높였으며 "2026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광주도시공사, 사회공헌 비전 선포...취약계층 '밀착 돌봄'

'The 모아...' 주거복지 역량 살려 3대 전략·22개 과제 ESG 내재화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공사의 '주거복지' 역량을 심분 살린 맞춤형 상생 모델을 대내외에 공표하며 지속 가능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도시공사는 29일 오전 10시 본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김승남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올해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사회공헌 종합계획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곁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광주도시공사'라는 비전 아래, 올해 핵심 슬로건인 'The 모아, The 배려'를 공유하며 전사적인 나눔 실



광주도시공사는 29일 15층 중회의실에서 김승남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올해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사회공헌 종합계획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 의지를 다졌다.

광주도시공사가 발표한 2026년 사회공헌 종합계획은 본업연계 나눔강화, 지역 기반 상생협력, 사회공헌 가치확산 등 3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총 22개의 세부 사업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형적인 단순 기부를 벗어나, 임대주택 관리 역량을 활용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소모임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 보호계층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생활안전 돌봄망도 총총하게 구축한다.

공헌 활동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실무자 중심의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상향식(Bottom-up)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연말에는 외부 사회복지 전문가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즉각 환류할 방침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의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지역 대표 공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곽경문·박은경씨 장남 대령(중흥건설 총보팀 과장)군, 김태남·유동심씨 처녀 성은(광산구 보건소)양-5월 2일(토) 오후 12시 30분 광주 드메르웨딩홀 본관 1층 르즈엘홀(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애인양육·장례지도사무료지

원 062-369-4009.

모집 △구당침·수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래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ონსე (음력 3월 14일)

- 48년생 어쩔 수 없이 어려우려 하는 고통 있다
-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내뚫고 맞지 않다
- 72년생 나이가러 할수록 더욱 힘들다
- 84년생 처음 힘들어도 나중엔 큰 기쁨 있을 것
- 96년생 전공을 살릴 수 있겠다
- 51년생 도움 받아들이면 여러 면으로 유익
- 63년생 금전에 관한 일들은 일단 미뤄라
- 75년생 재물 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
- 87년생 상부상조 해야 실행할 수 있을 것
- 99년생 귀하의 계절이 왔다
- 54년생 몸 고달프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날
- 66년생 소중한 물건 잃어버리겠다
- 78년생 필연적이러면 적극 나서는 것 마땅
- 90년생 운동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 57년생 감감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듯
- 69년생 공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형국
- 81년생 기대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보인다
- 93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민의 사랑 받는다
- 49년생 일복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다
- 61년생 성사 가능성이 높다
- 73년생 늦지 않으니 입을 다물어라
- 85년생 기회 좋아서 부동산 취득할 수도 있다
- 97년생 만회하기에 좋은 날
- 52년생 가족 불화의 징조 보이니 주의
- 64년생 말 앞서면 주변사람과의 마찰 생긴다
- 76년생 앞서가지 말라 겨우 현상 유지된다
- 88년생 필요한 시점에 놓일 것
- 55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 67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 79년생 지금부터 시작
- 91년생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 58년생 남비 말고 침묵지킬 때
- 70년생 재물 들어오지만 동업 권유하면 거절
- 82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 94년생 어깨 펴고 자신감 기질 때
- 50년생 곤란했다가 풀려나니 좌절하지 마라
- 62년생 남자와 더불어 일 하더라도 참고 피하라
- 74년생 계속 될 것이나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 86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 98년생 마음 자제력 없으니 조심
- 53년생 체면 불구하고 피하는 것이 낫겠다
- 65년생 대하는 다음으로 미루자
- 77년생 조용히 대세를 관망하라
- 89년생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
- 56년생 답답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끝겨 될 것
- 68년생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될 것
- 80년생 끌어오면 빛을 받을 수도 있다
- 92년생 스트레스 해소하는 날
- 59년생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
- 71년생 마음을 바꾸고 대세를 관망
- 83년생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이룰 것
- 95년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